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글과 말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다.]

이름	박채연
전공	건축설계전공
학번	20203205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1~9회차)

제목 : 글과 말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다.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9주 간 글말교실 수업을 듣고 나니,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글을 쓰는 시간, 말하기를 준비하는 순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글쓰기: 생각을 다듬는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에게 글쓰기란 ‘해야 하는 일’에 불과했다. 과제나 보고서를 채우기 위해 쓰는 글은 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겁기만 했다. 한 문장을 쓴 뒤에도 왠지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해서 지우고 고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이 즐겁기는 커녕 부담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 특강에서 배운 것은 글쓰기의 출발점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이었다. “글은 생각을 담은 그릇이다. 그 그릇을 채우기 전에 생각을 먼저 정리하라.”

강의를 듣고 나서야 글을 쓰기 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생각의 흐름을 잡는 일이었다. 노트 한 장을 꺼내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았다. 예를 들면, ‘표현’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 ** ‘왜 표현이 중요한가’, ‘글과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전까지는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서둘러 문장을 썼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먼저 점검하게 되었다.

머릿속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옮겨 적는 이 과정은 생각보다 유익했다. 흐트러져 있던 생각들이 글이라는 틀 속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리된 글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글쓰기란 결국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말하기: 진정성을 담은 목소리]

말하기에 대한 강의는 글쓰기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사실 나는 글을 쓸 때보다 말을 할 때 더 큰 부담을 느낀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중요한 순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준비해둔 내용이 있어도 막상 입 밖으로 꺼내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잊은 채 말이 나오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다. 말하기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화려한 표현이나 멋진 문장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 대해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강의 이후 나는 발표나 말하기를 준비할 때 작은 습관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할 말을 외우는 대신, 나의 생각과 목소리를 믿으려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제는 말이 엉키거나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글과 말이 이어지다.]

글과 말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이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그 생각이 말할 때 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될 수 있었다. 글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말은 나를 세상과 연결하게 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결국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강의 이후로 글을 쓰는 습관이 조금 바뀌었다. 부담 없이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짧은 메모로 남기기 시작했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메모를 기반으로 준비했다. 생각을 정리해두니 말할 때도 엉뚱하게 흐르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출발]

글말특강은 단순히 글과 말을 잘하는 기술을 알려준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글을 쓰는 일,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과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글이 영망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엉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글도, 말도 나의 진심을 담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글을 쓸 때도,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도 나의 생각을 믿고 표현할 것이다. 글과 말을 통해 나를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이번 글말특강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배움이었다. 글과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한 문장을 적어본다.